

‘승리 간절’ KIA 김도영, 벌금 각오 1루에 몸 날렸다



부상 우려 ‘벌금 1000만원’에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이범호 감독 “무리한 안타 하나보다 내일이 더 중요”

간절했던 김도영의 헤드퍼스트슬라이딩 논란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7-8로 뒤진 9회말 상대 오승환을 상대로 뒤집기쇼를 펼치면서 9-8 역전승을 기록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선빈의 좌중간 2루타와 나성범의 동점 적시타 그리고 서건창의 행운의 끝내기 안타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극적인 승리였다.

김도영도 9회 출루에 성공하면서 승리에 기여했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장면도 연출했다.

김선빈의 2루타 이후 무사 2루에서 타석에 선 김도영은 유격수 앞으로 땅볼 타구가 가지 1루로 전력 질주를 한 뒤 베이스를 향해 몸을 날렸다.

앞선 4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2개의 볼넷만 있던 김도영은 세이프를 위해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했다.

사실 공이 두 차례 바운드 된 뒤 유격수의 글러브로 향하면서 낙낙한 세이프였지만 김도영은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 몸을 날렸다.

부상 없이 1루에 안착했고 팀은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끝난 뒤 김도영은 코칭스태프와 선배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소연을 해야 했다.

김도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아시아프로야구챔

피언십에서 아찔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병살타를 막기 위해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한 김도영은 좌측 엄지 중수지절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견열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 시즌 박찬호도 1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목을 다치기도 했던 만큼 KIA는 ‘부상 방지’를 위해 1루 슬라이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간절했던 승리 앞에 김도영은 몸을 날리고 말았다.

경기가 끝난 뒤 김도영은 “이번에 정진 차리기로 했다”며 반성을 했지만 베테랑 김선빈 등 선배들과 코칭스태프는 ‘벌금 1000만원’을 강조했다.

이범호 감독도 “벌금까지 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던 것 같다. 팀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는지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방지다. 무리하게 만드는 안타 하나 보다는 내일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건강한 플레이를 강조했다.

김도영은 “벌금보다 승리가 더 중요했다”고 심재학 단장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하소연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김도영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라운드에서 가슴이 철렁했던 조재영 작전 코치는 “지난해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 없이 하기 위해서 한 약속



KIA 김도영이 지난 9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9회말 무사 2루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다.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일단 계약금을 받았다(웃음)”며 “본인도 의식은 했는데 슬라이딩 하고 나서 손목을 드는 모습이었다. 부

상 없이 주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고 있다. 그래도 부상 없이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

발 방지를 위한 약속 각서를 받아왔다. 지켜보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

‘아사니 결승골’ 광주FC, 전주성 징크스 깨고 3연승 질주

K리그1 26라운드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서 1-0 승

‘냉정한 승부사’ 이정호 감독을 웃게 만든 광주 FC의 3연승이었다.

광주는 지난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2024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24분 터진 아사니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기록했다.

견고했던 ‘전주성’을 뚫은 의미 있는 승리다.

광주는 K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2011시즌부터 지난 4월 13일 경기까지 전북 원정에서 1루 11개의 점수를 남겼다. 앞서 12경기를 하면서 9골을 넣은데 그쳤고, 무려 35골을 허용했다.

광주는 이번 승리로 전북 원정 무승 고리를 끊고 리그 3연승을 이었다. 3경기 연속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다.

대구FC 원정에 이어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이번에도 홈에서 이적 신고식을 치른 이승우 등을 잘 막아내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지휘한 이정호 감독은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좋았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해줬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며 “3경기 무실점이라는 건 팀이 끈근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겠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플레이를 보완하겠다”고 무실점 승리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경기에서 슈팅 수는 전북이 15개를 기록하면서 7개의 슈팅을 날린 광주에 앞섰다. 특히 전북은 후반에 11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를 두드렸지만 광주는 굳게 승리를 지켰다.

전반 2분 나온 ‘루키’ 안혁주의 슈팅으로 공세의 시작을 알린 광주는 전반 4분 베카가 첫 유효슈팅을 장식하면서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막강 전력의 전북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0분 전북 이승우의 슈팅을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품에 안았고, 전반 34분에는 송민규가 중원에서 넘어온 공을 잡아 광주 골대를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0-0으로 전반전을 끝낸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루키’ 안혁주와 문민서를 대신해 가브리엘과 이희균을 투입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후반 초반 싸움은 전북이 이겼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북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 수비의 슈팅이 나왔고, 17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안드리고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정확성이 떨어졌다.

후반 23분 안드리고의 헤더를 김경민이 다시 처리한 뒤 이어진 공격에서 광주가 선제골을 만들었다.

가브리엘이 왼쪽에서 페널티 박스 앞에 있던 아사니를 향해 공을 보냈다. 아사니는 오른발로 공을 잡은 뒤 왼발로 슈팅을 때렸다. 아사니의 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선제골이 됐다.

시즌 4번째 출장이자 시즌 첫 선발 출장에서 기록된 아사니의 시즌 1호골이었다. 올 시즌 6골을 기록하고 있는 가브리엘은 이 골로 시즌 4번째 도움을 올렸다.

후반 30분 전북 김진규가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때린 공이 골대 왼쪽 모서리 맞고 흐르는 등 행운의 여신도 광주편이었다.

광주는 이후 8분의 후반 추가 시간까지 버티면서 아사니는 시즌 첫 골로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팀은 ‘전주성 징크스’를 깨고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아사니가 지난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24분 결승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페퍼스 팬 초청 30일 공개 훈련

16일까지 참가 신청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오는 30일 팬들을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으로 초대한다.

페퍼스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페퍼스타디움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갖고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이번 오픈 트레이닝은 2023-2024시즌 AI페퍼스 멤버십 회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동반 1인까지 입장 가능하다.

공개 훈련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페퍼스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5시 30분 훈련 종료 이후 약 1시간 동안 선수들과의 포토타임이 진행된다.

페퍼스 관계자는 “팬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훈련하는 현장에 팬들을 초청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